

Session 12 Abigail's Wisdom Releases Grace To David (1 Sam. 25) 제 12 장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준 아비가일의 지혜 (삼상 25 장)

I. DAVID'S LESSON: TO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LEST YOU FAIL 다윗의 교훈: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 A. Three related episodes in David's life are set forth, one after the other, in 1 Samuel 24-26. David managed his anger when mistreated and refused to take his own vengeance with Saul (1 Sam. 24), but soon afterwards he failed in this with Nabal (1 Sam. 25). He learned from this and responded in a godly way the next time with Saul (1 Sam. 26). Thus, David responded well, then failed to be "alert" to his sinful weakness in his interaction with Nabal. This humbled him, and the redemptive result was that he was alert and equipped to succeed the next time he faced this issue with Saul.

다윗의 생애에서 세 가지 관련된 일화들이 삼상 24-26 장에 연달아 나온다. 다윗은 억울할 때 그의 분노를 다스렸고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는데 (삼상 24 장) 그리고 나서 바로, 나발에 대해서는 넘어지고 말았다 (삼상 25 장). 그는 이 일로부터 배운 뒤, 사울을 대할 때 경건한 방법으로 반응하게 된다 (삼상 26 장). 정리하면, 다윗은 훌륭하게 반응했고, 그리고 나서 나발을 대할 때는 자신의 죄의 연약함에 대해 "깨어있지" 못했다. 이것은 그를 겸손케 했고, 이로 인해 그는 정신을 차리고 후에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¹² ...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lest he fall. ¹³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except such as is common to man; but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also make the way of escape ... (1 Cor. 10:12-13)

¹²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¹³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 (고전 10:12-13)

- B. Abigail's appeal for reconciliation is one of the best examples in Scripture paralleling David's example in 1 Samuel 24. She was used by the Lord to keep David from a grievous sin.

아비가일이 화해를 요청한 것은 사무엘상 24 장의 다윗의 예와 함께, 화해를 요청하는 것 중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예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용하셔서 다윗이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다.

- C. Abigail with her godly character is a picture of a peacemaker. God used her to show David his error and keep him from doing evil. Because David had a teachable spirit, he was able to hear Abigail.

아비가일의 경건한 성품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보이셨고 악을 행하는 일을 막으셨다. 다윗은 마음이 굳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¹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²The tongue of the wise uses knowledge rightly, but the mouth of fools pours forth foolishness. (Prov. 15:1-2)

¹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²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 15:1-2)

- D. Solomon warned about women with beauty who lack discernment (Prov. 11:22). The women in Israel wore earrings and nose rings as jewelry. Solomon used the example of a pig, which was an unclean animal according to the law; a nose ring cannot beautify it. In a similar way, there is no physical adornment that can substitute for lack of discretion or discernment. Outward beauty without godly conduct has no lasting value; it makes a physically beautiful person “morally ugly.”

솔로몬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 (잠 11:22). 이스라엘 여인들은 보석으로 귀걸이와 코에 고리를 했다. 솔로몬은 돼지를 예로 들었는데,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었기에, 코고리도 돼지를 아름답게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꾸미는 것으로는 삼가는 것 혹은 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건한 행실이 없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은 영속적인 가치가 없으며, 이는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도 “도덕적으로 추하게” 할 수 밖에 없다.

²² *As a ring of gold in a swine’s snout, so is a lovely woman who lacks discretion. (Prov. 11:22)*

²²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잠 11:22)

³ *Do not let your adornment be merely outward—arranging the hair, wearing gold, or putting on fine apparel—⁴rather let it be the hidden person of the heart, with the incorruptible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very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⁵For in this manner, in former times, the holy women who trusted in God also adorned themselves... (1 Pet. 3:3-5)*

³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⁵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 (벧전 3:3-5)

II. SAMUEL DIED AND DAVID MOVED TO THE WILDERNESS OF PARAN (1 SAM. 25:1)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이동함

- A. The prophet Samuel’s death was a great loss for David as well as Israel (25:1). Samuel’s death undoubtedly brought great pain to David and dashed any hopes of a lasting reconciliation with Saul.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윗에게도 큰 슬픔이었다 (25:1). 사무엘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다윗에게 큰 아픔을 주었고 사울과의 화해에 대한 기대도 날려버렸다.

¹ *Then Samuel died; and the Israelites gathered together and lamented for him, and buried him at his home in Ramah. And David arose and went down to the Wilderness of Paran. (1 Sam. 25:1)*

¹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삼상 25:1)

- B. Samuel’s death is possibly what caused David to relocate further south, to the wilderness of Paran.

다윗은 아마도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더 남쪽 지역인 바란 광야로 옮기게 됐을 것이다.

- C. David moved south to the area of Paran or Maon. The Hebrew indicates to Paran, in the central portion of the Sinai Peninsula. The NIV used the LXX, which states it was the Desert of Maon.

다윗은 남쪽 지역인 바란 혹은 마온 지역으로 이동했다. 히브리인들은 바란을 시나이 반도의 중부 지방으로 나타낸다. NIV 번역본은 칠십인역을 사용해서 그것을 마온 광야라고 설명한다.

III. A DESCRIPTION OF NABAL AND ABIGAIL (1 SAM. 25:2-3)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묘사 (삼상 25:2-3)

- A. Nabal was very wealthy man who was foolish, harsh, and evil. His wife Abigail was a woman of good understanding. They lived in Maon, but owned much land and a business with livestock located one mile away in the Judean town of Carmel (this is not the same as Mt. Carmel). Nabal was from the family line of Caleb (an esteemed family in Judah); thus, he was David's kinsmen.

나발은 어리석고, 냉정하며 악하면서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었다. 그들은 마온에서 살았는데, 많은 땅을 소유했고 조금 떨어진 갈멜(갈멜산과 다른 곳임)이라는 유대 마을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 나발은 갈렙의 가문(유다의 존경받는 가문)으로, 다윗의 친족이었다.

²Now there was a man in Maon whose business was in Carmel, and the man was very rich. He had three thousand sheep and a thousand goats. And he was shearing his sheep in Carmel. ³The name of the man was Nabal, and the name of his wife Abigail. And she was a woman of good understanding and beautiful appearance; but the man was harsh and evil in his doings. He was of the house of Caleb. (1 Sam. 25:2-3)

²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³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삼상 25:2-3)

- B. **Shearing sheep:** Sheep shearing happened twice a year (spring and fall) and was a time of festivity because of the profits associated with selling the wool (2 Sam. 13:23-24).

양 털 깎기: 양 털 깎기는 일 년에 두 번하는데 (봄철과 가을철), 이 때는 양모를 판 수익으로 축제를 여는 기간이었다 (삼하 13:23-24).

IV. NABAL REFUSED DAVID'S REQUEST FOR FOOD AND PROVISIONS (1 SAM. 25:4-11)

나발이 다윗의 식량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다 (삼상 25:4-11)

- A. David sent men to ask Nabal, his wealthy kinsman, to bless them with food as David's men had served as a security force for his kinsman's animals (25:4-8). The value of this protection was seen when the Philistines attacked nearby Keilah (23:5). David was suggesting that he was entitled to an unspecified but appropriate gift in return for the protection he provided.

다윗은 그의 부유한 친족인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친족의 가축을 보호해 주었으니 나발이 음식으로 그들을 축복해줄 것을 요청했다 (25:4-8). 이런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던 사건을 볼 때 알 수 있다 (23:5). 다윗은 자신이 제공한 보호에 대해 자격이 있기에 정당한 보상으로 답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었다.

⁴When David heard in the wilderness that Nabal was shearing his sheep, ⁵David sent ten young men...⁶You shall say to him..., 'Peace to your house, and peace to all that you have!' ⁷...Your shepherds were with us, and we did not hurt them, nor was there anything missing from them all the while they were in Carmel. ⁸...Let my young men find favor in your eyes, for we come on a feast day. Please give whatever

comes to your hand to your servants and to your son David.”
(1 Sam. 25:4-8)

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 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⁵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 ⁶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⁷ ...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⁸ ...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삼상 25:4-8)

- B. Nabal responded negatively to David's request (25:9-11) in a way that expressed his harsh and evil character. He insinuated that David and his men were slaves broken "away from their masters."

나발은 다윗의 요청에 대해 냉혹하고 악한 성품을 드러내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25:9-11). 그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을 억지로 떠난" 종들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¹⁰Nabal answered David's servants, and said, "Who is David, and who is the son of Jesse? There are many servants nowadays who break away each one from his master. ¹¹Shall I then take my bread and my water and my meat ... and give it to men when I do not know where they are from?" (1 Sam. 25:9-11)

⁹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¹⁰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¹¹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삼상 25:9-11)

V. DAVID RESPONDED IN ANGER AND ABIGAIL IN WISDOM (1 SAM. 25:12-35)

다윗은 분노로 반응했고 아비가일은 지혜로 반응했다 (삼상 25:12-35)

- A. David was insulted by Nabal and responded in anger, mobilizing his men to kill Nabal.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분노했으며, 나발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했다.

¹²David's young men turned on their heels and went back; and they came and told him all these words. ¹³Then David said to his men, "Every man gird on his sword." So every man girded on his sword, and David also girded on his sword. And about four hundred men went with David, and two hundred stayed with the supplies. (1 Sam. 25:12-13)

¹²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¹³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삼상 25:12-13)

- B. Abigail was informed of Nabal's bad treatment of David and of the impending disaster (25:14-17). Her servant urged her to respond quickly since Nabal's entire household was in great danger.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을 험하게 대했고, 재난이 임박했음에 대해 들었다 (25:14-17). 그녀의 하인은 나발의 온 집안이 큰 위협에 처해 있었기에, 아비가일이 재빨리 행동하기를 종용했다.

¹⁴One of the young men told Abigail...saying, "Look, David sent messengers from the wilderness to greet our master; and he reviled them. ¹⁵But the men were very good to us... ¹⁶They were a wall to us both by night and day, all the time we were with them keeping the sheep. ¹⁷Now therefore, know and consider what

you will do, for harm is determined against our master and against all his household. For he is such a scoundrel that one cannot speak to him.” (1 Sam. 25:14-17)

¹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¹⁵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 ¹⁶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¹⁷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삼상 25:14-17)

- C. Abigail sent a message with a generous gift to David (25:18-19). David was about to seriously harm his spiritual life and future calling as king, but the Lord intervened to protect him by stirring Abigail to action at just the right time. Just prior, when David had been mistreated by Saul, he entrusted the situation to God to intervene. This time David needed God's gracious intervention to deliver him.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후한 선물과 함께 전갈을 보냈다 (25:18-19).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부분과 왕이라는 미래의 소명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기에 처했지만,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아비가일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을 보호하도록 개입하셨다. 다윗은 바로 직전에 사울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맡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개입하셔서 그를 구해 주셔야만 했다.

¹⁸Then Abigail made haste and took two hundred loaves of bread, two skins of wine, five sheep already dressed, five seahs [a bushel] of roasted grain, one hundred clusters of raisins, and two hundred cakes of figs, and loaded them on donkeys. ¹⁹She said to her servants, “Go on before me; see, I am coming after you.” But she did not tell her husband Nabal. (1 Sam. 25:18-19)

¹⁸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붉은 곡식 다섯 세아[한 부셸]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¹⁹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삼상 25:18-19)

- D. David and Abigail met the first time in a remote place under the cover of a hill (25:20-23). David's sinful reaction is seen in a conversation that is made known in a parenthetical clause (25:21-22). David was venting his offense and anger towards Nabal as he was journeying to meet Abigail in the mountains. We are surprised to see such hatefulness and bitterness being expressed by David. In anger, David made an oath to kill every male that was related to Nabal (25:22). He gave himself an “out” in this oath by pronouncing a curse on his enemies if the oath was not kept.

다윗과 아비가일은 산 호젓한 곳 아래에서 마주쳤다 (25:20-23). 다윗의 죄악된 반응은 삽입된 구절에 기록된 대화에서 볼 수 있다 (25:21-22). 다윗은 모욕에 분통을 터뜨리고 나발에 대해 분노하는 가운데 아비가일을 만나게 될 산 길을 지나고 있었다. 다윗이 이런 증오와 쓴 마음을 드러낸 사실은 매우 놀랍다. 다윗은 분노하며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25:22). 그는 만일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시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질 것에 대해 “자칭”했다.

²⁰....on the donkey she went down under cover of the hill; and there were David and his men, coming down toward her...²¹David had said, “Surely in vain I have protected all that this fellow has in the wilderness...and he has repaid me evil for good. ²²May God do so, and more also, to the enemies of David, if I leave one male of all who belong to him by morning light.”²³Now when Abigail saw David, she

dismounted quickly from the donkey...and bowed down to the ground.
(1 Sam. 25:20-23)

²⁰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²¹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서 나의 선을 갚는도다 ²²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²³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삼상 25:20-23)

- E. Abigail's wise and godly to appeal to David (25:24-31): This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appeals in the Bible. Her appeal began with nonverbal actions expressing her humility and respect as "she fell at his feet" with a request for mercy (v. 24). Only after these acts did she begin to speak.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경건한 요청 (25:24-31):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청들 중에 하나다. 그녀는 "그의 앞에 엎드림"으로 자신의 겸손과 존경을 나타내는 말 없는 행동으로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며 간청을 시작했다 (24 절). 그녀는 이러한 행동 이후에야 이야기를 시작했다.

²⁴*She fell at his feet and said: "On me, my lord, on me let this iniquity be..."* ²⁵*I, your maidservant, did not see the young men...whom you sent.* ²⁶*...the LORD has held you back from coming to bloodshed and from avenging yourself with your own hand...* ²⁸*For the LORD will certainly make for my lord an enduring house, because my lord fights the battles of the LORD, and evil is not found in you throughout your days.* ²⁹*Yet a man [Saul] has risen to...seek your life, but the life of my lord shall be bound in the bundle of the living with the LORD your God; and the lives of your enemies He shall sling out, as from the pocket of a sling.* ³⁰*It shall come to pass, when the LORD ...has appointed you ruler over Israel,* ³¹*that this will be no grief to you, nor offense of heart to my lord, either that you have shed blood without cause, or that my lord has avenged himself. But when the LORD has dealt well with my lord, remember your maidservant."* (1 Sam. 25:24-31)

²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 ²⁵ ...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²⁶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막으셨으니 ... ²⁸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튼튼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²⁹ 사람[사울]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 ³¹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삼상 25:24-31)

- F. David was both corrected and encouraged by her words. Her humble tone without sarcasm or accusation or anger made her appeal effective. Abigail began with a confession of "sin" (v. 24). Without excusing her husband's acts, she accepted the blame for David's mistreatment of him.

다윗은 그녀의 말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았을 뿐 아니라 격려를 얻었다. 냉소나 비난 혹은 분노가 아닌 겸손한 어조로 인해 그녀의 간청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아비가일은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24 절).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행동을 변명하기보다, 그가 다윗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의 책임을 인정했다.

- G. Abigail was appealing for David to save himself as well as her family. She successfully averted disaster as she spoke of David's destiny, reminding him of who he was before God. Her wise words and actions saved David from a great sin of shedding blood. In killing innocent men, he would break a serious command of God, which would result in judgment coming to him (Ex. 23:7).

아비가일은 그녀의 가족뿐 아니라 다윗이 자신을 보호하고 구할 것을 간청했다.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고 그의 부르심을 언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참사를 면하게 했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다윗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도록 했다. 다윗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범할 수도 있었고,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었다 (출 23:7).

⁷*Keep yourself far from a false matter; do not kill the innocent and righteous. For I will not justify the wicked. (Ex. 23:7)*

⁷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출 23:7)

- H. David received Abigail's wise appeal (25:32-35). One of David's defining characteristics was his teachable spirit, able to receive correction from people. David affirmed her words that the Lord used to prevent him from entering into bloodguilt as well as from doing evil to Abigail.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간청을 받아들였다 (25:32-35). 다윗의 주요 성품들 중에 하나는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교정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아비가일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³²*David said to Abigail: "Blessed is the LORD God of Israel, who sent you this day to meet me!" ³³And blessed is your advice...because you have kept me this day from coming to bloodshed... ³⁴For...unless you had hurried and come to meet me, surely by morning light no males would have been left to Nabal ³⁵...See, I have heeded your voice and respected your person." (1 Sam. 25:32-35)*

³²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³³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³⁴ ...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³⁵ ...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삼상 25:32-35)

- I. Abigail's actions—assuming responsibility for her husband's actions, giving money to help his enemies, and speaking encouragement with a prophetic element—saved the day for her family and for David. David accepted her appeal and turned his armed force back, then sent her home in peace.

아비가일의 행동, 즉 남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 것, 그의 대적들을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 그리고 예언적인 언어로 권면의 말을 한 것 등은 그녀의 가족과 다윗을 곤경으로부터 면하게 했다. 다윗은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의 무장한 군대를 철수시킨 다음, 그녀를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냈다.

VI. THE DEATH OF NABAL AND ABIGAIL'S MARRIAGE TO DAVID (1 SAM. 25:36-44) 나발의 죽음과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삼상 25:36-44)

- A. The death of Nabal after his banquet (25:36-39): When Abigail returned home, her husband Nabal was drunk at his festive meal celebrating the shearing of the sheep. In medical terms, Nabal may have experienced a stroke resulting in a coma. Nabal's death was more than a medical problem. It came as the direct result of judgment (cf. Acts 12:23).

잔치 후에 나발이 죽음 (25:36-39):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남편 나발은 양털 깎은 것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에서 취해 있었다. 의학적으로, 나발은 뇌졸중으로 인해 혼수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발의 죽음은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심판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참조. 행 12:23).

³⁶Abigail went to Nabal, and there he was, holding a feast in his house...he was very drunk...³⁷In the morning...his wife had told him these things...his heart died within him, and he became like a stone. ³⁸Then it happened, after about ten days, that the LORD struck Nabal, and he died. (1 Sam. 25:36-38)

³⁶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³⁷ 아침에 ...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³⁸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삼상 25:36-38)

- B. David sent Abigail a proposal through a messenger, and she became David's wife (25:39-44).

다윗은 전령을 통해 아비가일에게 청혼했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25:39-44).

³⁹When David heard that Nabal was dead, he said, "Blessed be the LORD, who...kept His servant from evil!...David sent and proposed to Abigail, to take her as his wife. ⁴⁰When the servants of David had come to Abigail at Carmel...saying, "David sent us to ask you to become his wife."⁴¹Then she arose, bowed her face to the earth, and said, "Here is your maidservant, a servant to wash the feet of the servants of my lord."⁴²So Abigail rose in haste and rode on a donkey... she followed the messengers of David, and became his wife. (1 Sam. 25:39-44)

³⁹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 중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⁴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⁴¹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중 이니이다 하고⁴²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삼상 25:39-44)